

올봄에는 생태관광 가볼까...여행주간 프로그램 풍성

(서울=연합뉴스) 이광철 기자 = 숲과 섬, 습지 등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봄나들이를 가는 건 어떨까.

환경부는 국내 여행 활성화와 여행 수요 분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계획한 봄 여행주간(5월 1일~14일)에 맞춰 전국 생태관광지역과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고 18일 밝혔다.

환경부는 2013년부터 제주 동백동산습지, 전남 신안 영산도 등 총 20곳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.

제주 동백동산습지에서는 '함께 만들고 그리는 숲 교실', 인제 생태마을(용늪)에서는 황태 축제와 산나물 축제, 서산에서는 어린이날 프로그램 '날아라 새들아' 등 지역별로 가족, 소규모 단체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.

제주도 동백동산 람사르습지에서는 화산지형이 보존된 김녕-월정 국가지질공원을 돌아볼 수 있다.

고창은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며, 동양 최대 고인돌 유적지가 있어 원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다. 변산반도 해변의 고사포 야영장을 이용하면 1박2일 일정도 가능하다.

국내 1호 람사르습지인 대암산 용늪자락이 있는 인제에는 냇강마을, 백담마을 등에서 다양한 체험행사를 선보인다.

용늪탐방은 하루 150명만 가능해(개방 기간 5·16~10·31) 예약해야 한다.

국립공원에서도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생태관광, 문화공연, 전시회, 특산물 장터 등 100여 개 행사를 한다.

생태관광 프로그램 정보는 환경부 생태관광 홈페이지(eco-tour.kr)에서, 국립공원 생태관광 정보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(knps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minor@yna.co.kr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